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지지하는 국제연대성회의 진행

10.4선언발표 5돐에 즈음하여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지지하는 국제연대성회의가 국제관계조정위원회 주최로 4일 인디아의 콜카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국제관계조정위원회, 전인디아반제연단,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인디아의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아프리카-아시아연대성위원회 서기가 초대되었다. 회의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이정표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연대성결의가 채택되었다. 결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데 대하여서와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의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리명박 파쇼도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

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가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본 회의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남조선 피뢰정권이 반공화국책동을 중지할것과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하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남조선 《정권》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며 외세의 간섭과 군사적행동이 없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협상에 응해나올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대표하여 본 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날로 우심해지는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자면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겨레의 지향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단합을 실현하는 전민족적위업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화합하고 단합할 때 안팎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현시기 남조선의 반통일보수 《정권》은 민족의 리익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대결과 분열만

을 추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해치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세당은 지난 시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에서 투쟁해온 진보개혁세력, 통일예국세력을 암살하며 《색갈론》선봉을 일으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정국을 보수재집권에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한 《중복세력척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을 《적》으로 규정된 《중복세력실체표준교안》이라는것까지 만들어 남조선군부대들에 《교육용》으로 내리막으로써 류렬적인 《제2의 광주주곡》을 재현하려 하고있다. 이러한것으로도 모자라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25일부터는 남조선 전역에서 동족을 겨냥한 《2012년 호국》훈련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이누르 더욱 바짝 몰아가고있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남조

선보수세당의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동족을 모함하다 못해 남조선내부에 계층 동포들이 역사적인 북남선언일으키는 《새누리당》은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암적존재이고 한시바삐 척결해야 할 민족내부의 적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는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운동의 성배는 전적없는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주체적통일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제끼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에서 서로의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쳐나갈 때 북남관계가 겨레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옹바로 발전할수 있고 통일의 날도 앞당길수 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7천만 우리 겨레의 거족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회일

나 날 이 변 모 되 여 가 는 평 양 의 모습



평양시 상흥아동공원 개건보수공사 완료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위치한 상흥아동공원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상흥아동공원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게 꾸려야 한다시며 몸소 러전을 잡아주신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어버이사랑을 길이 빛내여 갈 일념을 안고 공원개건보수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1만 6 000㎡의 굴착 및 성토작업, 보도블록깔기, 잔디, 나무심기 그리고 로라스케트장과 현대적인 종합체육장건설 등을 단 며칠동안에 해제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는 합장강과 보통강정리공사에 이어 평양시내 공원들을 인민군대가 맡아 훌륭히 꾸

리도록 크나큰 민심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한 지휘관, 병사들은 전투입무를 받은 즉시 공사에 달려붙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서관교양마당을 보다 훌륭히 꾸려졌으며 공원입구에 무지개모양의 문주를 특색있게 설치하였다. 제일 어려운 공사과제의 하나인 2 000여㎡에 달하는 로라스케트장건설일이 불도 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수천㎡의 기초굴착과 콘크리트기 및 인조석미장을 와닥다 해제된 인민군인들은 스케트장의 수평을 보장하기 위한 연마작업에서 기술공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일손을 다그쳐 이틀동안에 말은 과제를 끝냈다. 로라스케트장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된데 이어 현대적인 종합체육장을 건설하기 위한 전두가 동시에 벌

어졌다. 미니플드장, 롱구, 배구, 경구, 바드민턴장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로인들과 근로자들이 간편한 운동을 할수 있는 9종에 10여개의 건강운동기재도 설치되었다. 1만 1 600여㎡의 보도블록 깔기가 마무리되고 1만 5 100㎡의 면적에 잔디가 새로 심어졌다. 공원의 특색에 맞게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미끄럼대들을 새로 갖추어주고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수백개의 물상과 물의자, 원형의자 등을 풍치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놓았다. 어린이들의 행복낯친 모습을 형상한 금속조각과 물체 조각들로 이루어진 꽃모양의 분수못, 곳곳에 있는 동물조각들 그리고 왕문어미그림대, 배그네를 비롯한 유희시설들에도 군인들의 뜨거운 지성과 헌신적노력이 깃들어 있다. 본사기자

보통강정리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김정일예국주의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보통강정리공사에 별다른 산력명장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비약과 혁신으로 이어져 9일만에 78만여㎡의 감랑파기와 주변정리 등이 전부 끝나고 보통강이 인민의 강, 락인의 강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이것은 평양시를 선군조선의 수도답게 더 잘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기풍의 자랑찬 결실이다. 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공

사는 그 규모와 작업량에 있어서 방대하고 아름다운 과제였지만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답게 합장강정리공사를 와닥다 해제된 기세로 산악같이 일떠서 공사에 진입한 인민군인들은 시작부터 치렬한 돌격진을 벌리었다. 공사장 전구간을 들었다 놓는 화선식정리사업과 진취적인 작전과 지휘, 부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으로 전투장마다 세차게 들끓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감랑파기와 처리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대상별 주변정리작업들을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동시에 내밀면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

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려는 인민군인들간의 애국충정과 힘찬 로력투쟁에 의해 전투가 시작되어 불과 24시간만에 33만여㎡의 감랑을 파내는 위훈이 창조되었다. 료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여 6일째되는 날에는 감랑파기와 감랑운반을 100%로 수행하였다. 1, 2, 3, 5구역의 군인들은 감랑파기와 운반을 남편저 끝낸 기세로 용벽보수와 지대정리에 달라붙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 일념안고 군인들은 모든 일을 공범의 요구대로 하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전투계획을 철

선 넘쳐수행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3만 2 270㎡에 달하는 용벽보수 및 세척작업과 공사구간에 위치한 다리들의 란간보수와 도색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보통강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릴 열의에 넘친 인민군인들의 힘찬 투쟁으로 보통강반의 풍치가 날로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9만여㎡의 지대정리가 끝나고 7 500㎡의 면적에 잔디가 새로 심어져 보통강주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공사기간 인민군인들은 주변건물들과 록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

로써 인민의 군대로서의 품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군인들은 창광원앞 연못감랑파기와 지대정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 끝내였으며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보통강주변 공원을 개건보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공사기간 성, 중앙기관, 평양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대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있는 원호로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자 말 군인들의 단숨에의 공격정신, 일당백돌격속도로 인해 19일까지 말은 구간의 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공사



교예극 《춘향전》이 새로 나왔다

— 평양국립교예단에서 —

세계적으로 명성높은 교예예술단체인 평양국립교예단에서 최근 교예극 《춘향전》을 새롭게 창작하여 내놓아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시기 예술영화와 가교예예술단체인 평양국립교예단에서 최근 교예극 《춘향전》을 새롭게 창작하여 내놓아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제 제2장 《리별》, 제3장 《절개》, 제2경 《분노》로 절정을 이룬 교예극은 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오솔 등 교예의 모든 요소를 극적 방식으로 결합하여 당시 봉건적 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인민들의 아름다운 물리덕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 주었다.



역사상 고구려의 철기병과 포병

오래동안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었던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방대한 규모의 상비무력을 갖추고 있었던 고구려는 군중, 병종도 정연하게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담하였다. 말에 투구를 씌우고 네다리를 제의한 몸통이 전체에 갑옷을 입혔는데 그런 말을 《개마》라고 하고 그 기병을 《개마무사》라 하였다.

하루 고구려는 락 이른 시기에 강력한 철기병들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속담 《귀소문 말고 눈소문 내라》

귀로 듣고 소문내지 말고 실지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르는 말.

민속놀이 팔씨름

팔씨름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잡고 상대방의 손등을 땅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팔을 펼치는 신호에 따라 서로 팔힘을 써서 상대방의 팔을 왼쪽으로 제껴 손등을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것으로 된다.

《강계포수》의 유래

《강계포수》라면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한다.

《강계포수》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원정에 참전한 조종수들의 대부분이 《강계포수》들이었다.

《강계포수》들은 1866년 10월 《병인양요》때 강화도 남쪽요새인 정족산성을 공격한 프랑스함대를 격퇴

유모아 《너는 참 천치로다》

장인이 사위에게 특집갑자를 가르치는데 원체 어리석은 사위라 전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저르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장인이 사위에게 특집갑자를 가르치는데 원체 어리석은 사위라 전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휴, 뿌리 (10)

5
그때 일을 생각하는 영백은 다시금 진정할 수 없는 격정으로 눈금이 화끈하고 가슴이 후두두 떨려왔다.

가만 보니 신통허 언젠가 기관지염에 몇몇 달려먹은 적있는 황삼가루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들 벨것 같지 않았다. 아마 그런 심리적효과를 노려 그런 장면에 합당한 인상의 사나이를 세워놓았는지도 모른다.

건강상식 뇌의 기능을 높이는 방법

◎ 자기의 뇌에 대하여 신심을 가진다.
건강증과 관련한 근심을 버려야 한다.

민족문화유산 - 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병대가 북관지방(마천평이북의 함경북도지방)에 침입한 왜적과 싸워 크게 이겼음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이다.

북관대첩비는 1708년에 당시 함경도 북평사로 있던 최창대가 주동이 되어 길주목림명(오늘의 김책시 림명리)에 세웠다.



북관대첩비는 1708년에 당시 함경도 북평사로 있던 최창대가 주동이 되어 길주목림명(오늘의 김책시 림명리)에 세웠다.

북관대첩비라는 비 이름은 비의 앞면 윗단에 전자체(한자글씨체의 한가지)로 가로 써여 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병대가 북관지방(마천평이북의 함경북도지방)에 침입한 왜적과 싸워 크게 이겼음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이다.